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趙 法 鍾*

서 언
Ⅰ. 고조선 영역에 대한 기왕의 인식
1. 古朝鮮 在韓半島說
2. 古朝鮮 在遼東說
3. 古朝鮮 중심지 移動說
4. 고조선 관련 최근의 연구 동향
Ⅱ. 고조선 영역에 대한 문헌적 검토
1. 춘추전국시기 고조선의 영역
Ⅲ. 고조선 영역의 고고학적 검토
1. 지석묘 문화
2. 비파형동검문화
결 언

서 언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고조선의 역사적 성격은 민족사의 시점이란 측면과 함께 중국문화와 문화적 대비가 뚜렷하게 부각된 첫 국가란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존재이다. 본 연구는 우리 민족사의 통시대적 영역을 확인하고 그 문화적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첫 단계인 고조선의 역사전개과정과 그에 부응한 영역범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고조선은 한국사의 인식체계에서는 '檀君', '箕子', '衛滿' 등 3개의 성격을 달리하는 정치체가 계기적으로 연결되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 우석대학교 사학과 교수.

있다.[1] 특히 중국과는 춘추·전국시대 및 秦·漢교체기에 조선이란 존재로 다양한 정치세력과 조우하였다. 또한 위만조선시대를 전후하여 匈奴로 대표되는 騎馬遊牧勢力과도 교류가 있었다. 이같이 고조선은 이들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교류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정치적 성쇠과정을 통해 영역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한편 고조선과 관련된 고고학적 문화양상은 琵琶形銅劍 및 支石墓와 石棺(槨)墓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였다. 이 같은 문화는 중국계 청동기문화와는 峻別되어 遼東半島, 東北滿洲 및 韓半島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적 검토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변화와 중국 세력과의 관계변화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고고학적 자료검토를 통해 고조선 사회의 기반문화인 청동기문화 관련 유적 및 문화내용과의 상호대응 관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문화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고조선의 역사, 문화적 영역확인을 통해 이후 歷史體와의 연결성도 검토하고자 한다.[2]

Ⅰ. 고조선 영역에 대한 기왕의 인식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기왕의 연구경향은 衛滿朝鮮과 漢의 갈등과 漢郡縣설치 관련 사건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크게 고조선 중심지 논의가 韓半島中心說, 遼東中心說, 移動說 등 세 가지 입장으로

1) 김정배, 『한국사 -초기국가-』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2) 최근 이와 관련된 다음 연구가 참조된다.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彊域의 變動」(『東洋學』 29, 1999).
송호정,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韓國古代史論叢』 10, 2000).

나뉘어 진행되었다. 우선 이들 논의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영역문제에 대한 접근을 진행하고자 한다.

1. 古朝鮮 在韓半島說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大洞江 유역에서 찾는 견해는 크게 중국측 학자들이 유지한 견해와 대부분의 우리 나라 전통 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측 학자 北魏人 酈道元(469-527)은『水經注』를 통해 平壤=樂浪郡朝鮮縣=(王險城)인식을 부각시켰다.[3] 또한『史記索隱』에 인용된 薛瓚도 王險城과 樂浪郡을 연결짓고 있으며[4] 이후 唐代에 편찬된『括地志』등에서 이와 같은 이해를 고착하고[5] 杜佑의『通典』에서 정설로서 자리잡게 되었다.[6]

한국측 기록은『三國遺事』를 기록한 一然의 견해가 첫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일연은 檀君朝鮮에 대한 기록에서 대부분의 지명을 平壤을 중심한 지역과 연결시키고 있다.[7] 또한 조선초기에 편찬된『東國通鑑』이

---

3)『水經注』浿水, "浿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浿縣東入於海‥‥余訪蕃使 言城在浿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浿水西至增地縣入海".

4)『史記』朝鮮傳,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也"『漢書』地理志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5)『正義』潮仙二音・括地志云 高驪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

6)『通典』邊防典凡十六卷 卷一百八十五 邊防一 東夷上 序略. "秦幷天下 其淮泗夷皆散爲人戶・其朝鮮歷千餘年 至漢高帝時滅・武帝元狩中 開其地 置樂浪等郡 … 高麗本朝鮮地 漢武置縣 屬樂浪郡 時甚微弱・後漢以後 累代皆受中國封爵 所都平壤城 則故朝鮮國王險城也"

7)『三國遺事』권1, 紀異 古朝鮮. 일연은 阿斯達은 開城 주변, 太白山은 妙香山으로 비정하고 檀君이 도읍한 平壤城을 西京 즉 현재의 平壤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東國輿地勝覽』[8]에서도 古朝鮮의 중심지는 압록강 이남으로 비정되고 있다.

고조선의 대동강 중심설은 식민지시대를 통해 일본인 연구자 및 李丙燾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이를 식민지배의 역사적 설명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30년대 집중적으로 발굴된 평양지역의 중국계 유물, 유적을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9]

한편, 북한학계에서는 도유호를 중심으로 일련의 고고학 관련 학자들이 60년대 초반 평양지역의 유적 유물에 입각하여 平壤中心說을 주장하였으나 요동설로 공식적 입장이 정리된 이후 이같은 견해가 제기되지 못하다가 최근 檀君陵 발견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새로운 입장으로 재등장하고 있다.[10] 즉, 북한학계는 단군조선의 초기영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遼河, 松化江 상류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後朝鮮('箕子朝鮮')시기에는 중국과의 경계선이 灤河유역으로 확대된 후 燕과의 갈등, 秦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漢대에는 현재의 大凌河를 浿水로 파악하여 이를 경계로 漢과 대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漢이 침공한 곳은 副首都인 요동지역의 王儉城으로 이곳에 漢四郡이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11]

---

8)『東國輿地勝覽』51, 平壤府 建置沿革.

9) 조법종,「한사군문제(平壤지역문화)에 대한 일본역사학계의 인식검토」(『송갑호선생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10)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平壤의 근교에 있는 강동군 강동읍의 대박산에 존재한 무덤에 대하여 1993. 10. 2.「단군릉 발굴보고」를 발표하고 10월 12일「단군 및 古朝鮮에 관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 무덤이 단군릉임을 확정지웠다(이형구 편,『단군을 찾아서』, 1993, 살림터 ; 북한문제연구소편,『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 자료』, 1993).

11) 사회과학출판사,『고조선력사개관』(1999_.

2. 古朝鮮 在遼東說

고조선 요동중심설은 중국측 기록중 위만조선의 수도인 王險城이 險瀆에 위치하고 있다는 견해로 대표된다.[12] 南宋代 裵駰이 찬술한『史記集解』에서는 後漢代 사람인 徐廣의 견해를 인용하여 昌黎에는 險瀆縣이 있다고 하였다.[13] 한편, 唐代 司馬貞이 찬술한『史記索隱』에서는 徐廣의 말과 후한대 應昭의 주를 인용하여 요동의 險瀆縣이 朝鮮王의 舊都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14]

이러한 이해는 王險城이 遼東지역의 險瀆縣 지역에 있으며 이곳이 조선왕의 舊都邑이라는 인식으로 요약된다.

한국측 기록 중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역에 설정하는 견해는 權擘의『應制詩註』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洪汝河는『東國通鑑提綱』에서 眞番을 遼陽에 비정하고 浿水도 遼河로 비정하여 요동중심설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申景濬, 李瀷 등이 고조선의 중심을 요동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15] 이러한 견해는 申采浩, 崔南善, 安在鴻, 鄭寅普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고조선의 요동중심설은 1960년대초 이후 북한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16] 요동설과 관련된 북한학계의 일련의 연구과정은 요동설, 평양설 및 이동설로 나뉘어 진행된 논쟁의 기간을 거쳐 리지린으로 대표되는 요동설로 정착되었다.[17] 그러나 이 견해는 단군릉

12) 이도남,「중국사서의 한 낙랑군에 대한인식 -낙랑平壤설의 성립배경-」(『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13)『集解』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14)『漢書』志 卷二十八下 地理志第八下 索隱 韋昭云「古邑名」·徐廣曰「昌黎有險瀆縣」·應劭 注「地理志遼東險 瀆縣 朝鮮王舊都」應劭曰 朝鮮王滿都也·依水險 故曰險瀆
15) 韓永愚,『朝鮮後期 史學史硏究』(一志社, 1989).
16) 徐榮洙, 앞의 논문(1988), 28-32쪽.
17) 조법종,「북한의 古朝鮮사 인식체계에 대한 고찰」(『북한의 우리고대사 인

발굴이후 평양중심설로 급선회되고 요동지역은 발전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尹乃鉉이 북한학계의 요동설에 일부 내용을 변화시킨 입장을 표방하였다.[18]

3. 古朝鮮 중심지 移動說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은 요동설과 평양설의 절충적 측면이 강한 견해로서 두 지역에 공존하는 고조선 관련 문헌 및 고고학적 자료의 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지역으로 설정하고 후기에는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른 영역축소라는 이유로서 한반도 서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논리이다. 먼저 箕子族團의 존재를 중시한 견해로서 千寬宇는 사료에 나타난 箕子東來說을 중시하여 이를 箕子族의 이동이란 관점에서 이해하였다.[19] 李亨求는 殷末·周初에 大凌河유역에 周族으로부터 밀려난 殷王族인 箕子를 대표로 하는 殷의 遺民들이 箕子조선을 건국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자조선은 기원전 12-11세기경 箕子의 이주로부터 기원전 2세기초 朝鮮王 準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 년을 이어 왔다고 하였다.[20]

徐榮洙는 전성기의 고조선의 강역은 대체로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大凌河 유역에서 東胡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대동강 유역을 경계로 辰國과 이웃하며 북쪽과 동쪽으로 濊貊, 夫餘, 眞番, 臨屯, 肅愼과 접하는 것으로 보았다.[21]

식』 I, 대륙연구소, 1991).

18) 尹乃鉉, 『古朝鮮硏究』(一志社, 1995).

19) 千寬宇, 『古朝鮮·三韓史硏究』(一潮閣, 1989) 10-13쪽.

20) 李亨求, 「韓國民族文化의 시베리아起源說에 대한 再考」(『東方學志』 69, 1990) 12쪽.

21) 徐榮洙, 「古朝鮮의 位置와 彊域」(『韓國史市民講座』 2, 1988) 45-49쪽.

盧泰敦은 기원전 3세기초까지 고조선의 중심부는 요동에 있었다고 하였다.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海城縣의 서남쪽과 蓋平縣을 포괄하는 지역의 어느 곳에 있었고 燕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22] 이와 같은 이동론적 인식은 북한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반 鄭燦英 등 일부의 견해로서 나타났었다.[23]

4. 고조선 관련 최근의 연구동향

고조선과 관련된 최근의 견해는 기왕의 견해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고있다. 金貞培는 기존에 진행된 고조선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 및 문헌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진행하였다.[24] 이를 통해 동북아 靑銅器 文化 및 支石墓文化 등 중국, 한국, 일본학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통해 고조선사에 대한 체계적 인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북아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석묘와 석관묘의 전통이 위주가 된 요동지역의 묘제에서 전형적인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橫耳附鼓頸壺[25]) 등이

———,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彊域의 變動」(『東洋學』 29, 동양학연구소, 1999).

22)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韓國史論』 23, 1990) 42-53쪽.

23) 趙法鍾, 「古朝鮮關係硏究의 現況과 課題」(『檀君學硏究』 1, 1999).

24) 金貞培,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硏究」(『國史館論叢』 88, 1999).

25) 이 용어는 김정배 교수가 최근의 발굴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용어인 한국과 일본학계가 사용한 '美松里型土器'나 중국학계의 '弦紋壺'의 모호한 개념 대신 제시한 용어이다. 橫耳附鼓頸壺란 '가로손잡이가 붙은 목이 볼록한 단지'라는 의미로 遼東地域에서 琵琶形銅劍이 등장하는 시기는 弦紋이 시문된 橫耳附鼓頸壺의 출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함께 나타나므로 이 지역에서 古朝鮮 가운데 濊貊朝鮮(소위 '箕子朝鮮')의 위치를 찾고 중심지를 거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군릉 발견 이후 진행된 북한학계의 고조선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고조선사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구체적 역사체에 대한 이해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宋鎬晟은 大凌河 - 遼河를 경계로 요서지역 夏家店 上層文化의 담당자는 山戎族의 문화이고 요동지역 遼寧式 銅劍文化의 담당자는 濊貊族 계통의 문화로 규정한 뒤 遼東지역 청동기 문화를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로 보았다.[26] 특히, 지석묘, 미송리형 토기 및 팽이형토기로 특징되는 이 지역문화는 燕과의 관계 속에서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은 濊貊族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고 기원전 3세기 燕의 공략에 의해 淸川江 이남 지역에서 고조선은 국가적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徐榮洙는 樂浪郡의 성격이해를 새롭게 진행하여 낙랑군 설립 후 중국의 영향력 약화에 따라 중국계 유이민 중심의 자치적 왕국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여 낙랑군 이해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였다.[27]

한편, 趙法鍾은 衛滿朝鮮의 완전한 붕괴시점이 기원전 108년이 아닌 기원전 107년이며 이같은 사실은 위만조선의 도읍인 王險城이 함락되기 전에 樂浪郡이 王險城과는 다른 곳에 설치되어 王險城과 樂浪郡이 병존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28] 이는 낙랑군이 王險城에 설치되었다는 기존 통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王險城은 기원전 107년 설치된 玄菟郡설치지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파악하였다. 또

하고 있다(金貞培, 위의 글, 1999. 43쪽).

26) 宋鎬晟,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27) 徐榮洙, 「對外關係史에서 본 樂浪郡」(『史學志』 31, 1998).

28) 趙法鍾,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 樂浪郡의 位置」(『韓國史硏究』110, 2000) 및 「衛滿朝鮮의 對漢戰爭과 降漢諸侯國의 性格」(『先史와 古代』14, 2000).

한 고구려벽화고분벽화 내용 분석을 통해 고구려의 전왕족인 消奴部 세력이 단군신화를 시조신화로 유지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9] 한편, 金南中도 문헌 및 유물분석을 통해 王險城이 현재의 평양지역이 아닌 압록강 유역 고구려 발생 지역과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한 견해를 제시하여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30]

이상에서 제시된 고조선의 중심지와 영역 문제에 대한 견해를 검토해 보면 결국 고조선의 위치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접촉에 관련된 地名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따른 해석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중국세력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지명은 고조선 관련 사료에서 추출되는데, 전국시대 燕과 고조선의 관계, 燕代 遼東의 위치, 秦長城의 위치, 滿番汗, 浿水의 위치, 王險城의 위치, 및 漢에 의해 설치된 漢四郡 특히, 樂浪郡의 위치문제 등에 집중되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Ⅱ. 고조선 영역에 대한 문헌적 검토

1. 춘추전국시기 고조선의 영역

1) 齊와의 교역

중국문헌 중 가장 먼저 고조선 관련 명칭인 '朝鮮'이 등장한 기록은 기원전 7세기경 기록인 『管子』에 나타나고 있는 齊나라와의 교역관련

29) 趙法鍾, 「高句麗社會의 檀君認識과 宗教文化的 特徵」(『韓國古代史研究』 21, 2001).
30) 金南中, 「衛滿朝鮮의 領域과 王儉城의 位置」(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내용이다.

A. 桓公問 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筴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 燕之玆山白金一筴也 發朝鮮之文皮一筴也(『管子』 23, 揆道)
B.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 游於天下 而傷寡人 … 發朝鮮不朝 請文皮皮服而以爲幣乎 … 一豹之皮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管子』 24, 輕重甲)

상기 사료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齊 桓公이 管子와 진행한 대화에서 고조선과의 교역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조선의 역사지리적 거리가 '팔천리'이상이라는 관념적 표현을 통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존재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료에서 고조선의 역사적 존재가 이미 중국 춘추시대에 확인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管子』의 상당수 내용이 전국시대 저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전승이 수록되었다고 이해될 때 이 시기를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2) 燕과의 인접성

C.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山海經』 海內北經)
D.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山海經』 海內經)
E. 蘇秦 …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戰國策』 燕策)

상기 사료에서는 燕文侯(기원전 361-333) 시기 燕의 동쪽에 존재한 조선이 언급되고 있다. 이같이 조선과 燕과 지리적 인접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면서 '遼東'이 바로 함께 존재한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先秦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의 역사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 춘추시대의 중국과 교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복속 문제도 염두에 두고있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시대 문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燕나라와의 지역적 인접성이 강

조되면서 관련지명으로서 '列陽', '遼東' 등이 나타나고 있다.

3) 燕과의 정치·군사적 갈등

그런데 이 시기에부터 본격적인 중국세력과 고조선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음이『史記』朝鮮傳과『三國志』韓傳 인용『魏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F-1)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 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 乃止·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三國志』韓傳 引用『魏略』)

F-2)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三國志』韓傳 引用『魏略』)

G.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 朝鮮爲置吏 築鄣塞(『史記』115, 列傳 55 朝鮮列傳)

먼저 사료 F에서 燕과 고조선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료의 F-1부분에서는 燕이 稱王하는 시기에 朝鮮도 함께 칭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燕의 易王(기원전 332-321)이 처음으로 왕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31] 이 때일 가능성이 높은 바 기원전 4세기 후반 경에 조선도 칭왕하고 연에 대하여 신하인 大夫 禮를 파견하여 외교적 공세를 펼치며 군사적으로 상대할 만큼의 국가적 체계를 확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F-2와 G부분에서는 이러한 고조선의 성장에 대한 연의 구체적 공세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사료에서는 燕將 秦開의 고조선 서변 2천리 공취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史記』匈奴傳에 나타나고 있는 진개

31) 전국시대 중국의 칭왕상황은 齊나라가 기원전 334년, 秦과 韓은 기원전 325년, 魏, 趙, 燕 등은 기원전 323년으로 이해되고 있다.

가 東胡를 치고 천리를 개척하여 5군을 설치하였다는 내용과 다음 내용과 연결된다.

H.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史記』 110, 匈奴傳 50)

I. 燕襲走東胡 僻地千里度遼東而攻朝鮮(『鹽鐵論』 8, 伐攻篇)

이 사건은 고조선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로서 이해된다. 즉, 기원전 3세기경까지 遼東 以西선까지 유지되던 고조선의 서쪽 경계가 秦開의 공격에 의해 2천리라는 영역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상당한 타격과 영토 상실이란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앞의 F사료에서 '滿番汗'이란 곳을 경계로 연이 2천여 리의 지역을 빼앗은 고조선과 접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곳은『漢書』地理志에 나타나는 前漢代 遼東郡의 屬縣으로 文縣과 番汗縣의 연칭으로『讀史方輿紀要』에서는 文縣故城이 蓋州衛 서쪽에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 요동 반도의 蓋平 서쪽에 文縣이 비정되며 番汗縣의 경우『漢書』地理志 番汗縣조에 沛水가 흐른다는 내용[32]을 참조할 때 淤泥河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바 이들 지역은 현재의 遼東 海城縣 및 蓋平일대로 파악된다.[33]

따라서 기원전 7세기경인 춘추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조선의 대중국관계는 전국초기에는 연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대등한 정치,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며 연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기원전 3세기 중반 燕 昭王 때에 秦開에 의한 東胡공략과 함께 고조선에 대한 공세가 급격히 진행되어 고조선 영역의 축소가 진행되었다고

32)『漢書』地理志 番汗縣 "沛水出塞外 西南入海"

33) 盧泰敦,「古朝鮮 中心地의 變遷에 대한 연구」(『韓國史論』 23, 1990) 49-51쪽.

보인다.

한편, 燕長城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34] 燕長城의 東端은 '醫巫閭山' 일대로 연장성은 遼河를 넘지 못한 것 같다.[35]

4) 秦의 중국 통일과 고조선과의 관계

秦에 의한 중국통일시기에는 앞서 燕의 동방침공에 의해 구축된 고조선과의 영역 경계가 유지되면서 정치적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진행되었다.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蒙恬을 시켜서 長城을 쌓게 하여 遼東에 까지 이르렀다. 이때에 조선왕 否가 왕이 되었는데, 진나라의 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나라에 복속을 하였지만 조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否가 죽고 그 아들 準이 즉위하였다.

J-1) 及秦幷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否死其子準立

J-2) 二十餘年而陳 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三國志』 韓傳 인용 『魏略』)

K. 秦滅燕 屬遼東外徼(『史記』 115, 列傳 55 朝鮮列傳)

L. 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 朝鮮 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隘 選蠕觀望(『史記』 25, 律書 3)

M. 秦旣幷天下 東絶沛水幷滅朝鮮 秦(『鹽鐵論』 8, 誅秦 44)

N.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兆 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竝陰山至遼東 (『史記』 6, 秦始皇本紀)

O. 築脩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淮南子』 18, 人間訓)

---

34) 鄭紹宗, 「河北省戰國・秦・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中國長城遺蹟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34-39쪽
布尼阿林,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查報告」(『中國長城遺蹟調查報告集』, 文物出版社, 1981) 40-44쪽.

35) 김정배, 앞의 글(1999), 72쪽

즉, 秦代 고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는 기본 자료는 遼東의 위치와 秦長城의 東端이 어디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진장성은 기본적으로 앞서 연나라가 쌓았던 障塞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 장성의 동쪽 끝의 위치에 대해서는 遼西說, 遼東說, 韓半島 西北部說 등이 제시되어왔다.

遼西說의 경우 『水經注』에 나타나고 있는 碣石山[36]이 長城의 기점이란 견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즉 秦長城이 현재의 山海關 지역의 갈석산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동설은 『史記』 匈奴傳 등에 長城이 臨洮에서 시작되어 요동에 이르렀는데 만여 리이다.[37]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래 고조선의 영역을 압록강 이남지역에서 찾은 견해에 의하면 秦·漢代 遼東은 현재 遼河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해하며, 또 고조선 영역을 淸川江 이남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요동의 위치는 遼河 以東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秦·漢代 遼東郡의 領域은 遼河 이동지역이 되며 요동과 요서의 경계가 현재의 遼河로서 파악케 된다.

이와 같이 秦·漢代 遼東의 위치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그 西邊이 현재의 遼河라는 견해와 灤河라는 견해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인가 또는 현재의 遼東지역인가라는 문제 및 고조선 강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최근의 요동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문헌고증에 의거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현재의 요동지역으로 이해되어지며, 특히 大凌河 以東 지역에서 고조선의 독자적 문화와 정치적 영역을 상정케 된다.

---

36) 『水經注』1, 河水.

37) 『史記』 110 匈奴列傳 50 "起臨洮至遼東萬餘里"

P. 大夫曰 往者四夷具强 竝爲寇虐 朝鮮踰徼 劫燕之東地(『鹽鐵論』 7, 備胡)

상기 사료에서는 고조선이 徼를 넘어 燕의 동쪽 땅을 공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이는 고조선이 중국세력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정치 복속과 대립을 견지하면서 계속 燕秦세력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전개는 고조선의 정치, 군사적 역량이 燕·秦을 상대할 만큼의 국가적 수준으로 존재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된다.

5) 衛滿朝鮮의 성립과 漢과의 관계

秦·漢 교체의 혼란기에 진행된 고조선 지역으로의 대규모 유민이동과 이 시기에 진행된 위만조선의 성립과정에서 고조선의 지리적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Q-1)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浿水爲界 屬燕(『史記』 115, 列傳 55 朝鮮列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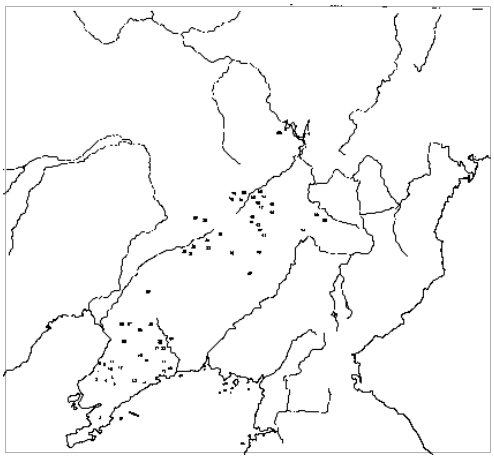
Q-2)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魋結蠻夷服 而東走出塞 渡浿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 朝鮮蠻夷及故燕 齊亡命者王之 都王險(『史記』 115, 列傳 55 朝鮮列傳)

사료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한과 위만조선의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지명은 浿水, 그리고 중심거점은 王險으로 나타나고 있다.

浿水는 우선 漢과 조선의 국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衛滿의 망명과 漢 武帝의 조선침공 및 한사군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시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浿水의 위치에 관해서는 종래 大同江說, 淸川江說, 鴨綠江說, 요동방면설로는 灤河, 大凌河, 渾河說 등이 제시되고 있다.

『史記』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 浿水는 遼東故塞(燕의 障塞)와 秦

故空地사이의 江이다. 연의 동방진출시 조선과의 국경선이었던 滿番汗이 자연계선이라면 浿水은 이와 병행하는 강이 된다. 滿番汗이 天山山脈 주변의 지명에 비정되므로 古朝鮮의 중심 이동과 관계없이 浿水는 요동지역의 강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중국 동북 지역의 지석묘 분포도

한편, 패수와 함께 위만의 도읍으로 등장하는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王險城의 위치는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의 강역은 물론, 위만조선 멸망 후 그 지역에 설치된 한사군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주석 자료의 차이에 의해 王險城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이르기까지 王險城의 위치는 현 평양으로, 또 고조선이나 한사군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로 이해되어 왔다.[38]

이에 대해 遼東郡의 속현인 險瀆을 朝鮮系 지명인 '검터'의 한자어 표기인 검독으로 이해하고 이를 王險城에 비정하여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도읍이 계속하여 遼東에 있었다고 본 견해가 있는데, 리지린은 이러한 견해를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실제 현 盖平 지방으로 그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39]

38) 정약용,『여유당전서』강역고 朝鮮考.
39) 리지린, 전게서(1963), 83-96쪽.

한편, 고조선의 이동설에 의하면 險瀆은 고조선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조선계 지명으로서, 고조선의 도읍은 遼東의 험독에서 평양의 險瀆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고조선의 초기 도읍지는 遼東의 險瀆이 분명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대체로 遼河 이동 천산 이서의 어느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기의 王險城은 진고공지 이남에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고조선이 遼東의 險瀆에서 그 중심을 옮긴 이후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후기 중심지에 대해 이동론에서는 평양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동향에서 지적되었듯이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구려 초기 거점지역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지속적인 논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Ⅲ. 고조선 영역의 고고학적 검토

1. 지석묘 문화

동북아시아 지석묘 문화는 중국의 요동반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지석묘는 요동반도가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다.[40] 요동반도의 지석묘는 남으로 大連, 金縣, 新金, 復縣, 蓋縣, 庄河, 岫岩, 營口, 海城에서부터 북으로는 淸原縣, 新賓縣, 開原縣에 이르는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吉林省의 樺甸縣에서도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 金貞培, 「中國 東北地域의 支石墓 硏究」(『國史館論叢』 85, 1999a). 이하 서술내용은 본 논문은 다수 참조하였다. 중국에서는 支石墓를 石棚으로 칭하며 발전형태를 大蓋石墓로 표현하고 있다.

즉, 중국의 지석묘 분포는 남으로는 大連, 營口와 丹東지구이고 북으로는 吉林省의 通化와 길림지구까지 퍼져있다.[41] 즉, 요녕성 지석묘는 遼河이동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요동반도의 지석묘 형태는 한국의 이른바 북방식 지석묘와 연결되며 이 문화담당자는 濊貊族으로 파악된다.[42] 한국의 지석묘가 변형 지석묘

---

41) 許玉林,「遼東半島石棚之研究」(『北方文物』 3, 1985) 17쪽.
徐家國,「遼寧省撫順市渾河流域石棚調査」(『考古』 1990-10, 1990) 959-960쪽.
許玉林・崔玉寬,「鳳城東山大石蓋墓發掘簡報」(『遼海文物學刊』 1990-2, 1990) 1-8쪽.
陳大爲,「試論遼寧石棚的性質及其演變」(『遼海文物學刊』 1991-1, 1991) 82-89쪽.
金旭東,「1987年吉林東豊南部蓋石墓調査與淸理」(『遼海文物學刊』 1991-2, 1991) 12-22 쪽.
王洪峰,「吉林南部石棚及相關問題」(『遼海文物學刊』 1993-2, 1993) 1-8쪽.
———,「石棚墓葬研究」(『靑果集』, 知識出版社, 1993) 245-255쪽.
許玉林,「蓋縣伙家窩堡石棚發掘簡報」(『考古』 1993-9, 1993) 800-804쪽.
———,『遼東半島的石棚』(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4).
武家昌,「遼東半島石棚初探」(『北方文物』 1994-4, 1994) 13-17쪽.
安志敏,「浙江瑞安・東陽支石墓的調査」(『考古』 1995-7, 1995) 585-588쪽.
孫福海・靳維勤,「石棚考略」(『考古』 1995-7, 1995) 626-631쪽.
王嗣洲,「試論遼東半島的石棚墓與大石蓋墓的關係」(『考古』 1996-2, 1996,) 66-72쪽.
42) 金貞培,『韓國民族文化의 起源』(고려대출판부, 1973).
金貞培,「韓國和遼東半島的支石墓」(『韓國學論文集』 4,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1995) 95-105쪽.
李亨求,「渤海沿岸地區 遼東半島의 고인돌 무덤 연구」(『정신문화연구』 32, 1987) 203-222쪽.
田村晃一,「遼東石棚考」(『東北アジアの考古學-第二 槿域-』,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깊은샘, 1996) 95-120쪽
金貞姬,「東北아시아 支石墓의 研究」(『崇實史學』 5, 1988) 95-154쪽.
河文植,「中國 東北地域 고인돌 研究의 成果와 現況」(『白山學報』 39, 1992) 5-30쪽.
———,「中國 吉林地域 고인돌 研究」(『韓國上古史學報』 27, 1998) 27-65쪽

등으로 변화된 것처럼 중국도 大蓋石墓 등으로 변화를 해 같은 문화권 내에서의 변화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파형동검 등이 공통의 문화요소로 등장하는 것과 석관묘가 공통의 墓制로 자리잡는 것도[43] 한국과 요동반도의 청동기문화가 동일함을 확인시켜준다.[44]

한편, 지석묘는 이후 청동검을 반출하는 석관묘로 변화, 발전하는 데 지석묘의 분포가 遼河를 경계로 한다는 사실과 支石墓에서 石棺墓로 이행하는 계기점이 바로 遼河라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濊貊族의 활동영역에 속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고조선의 단계적인 발전을 상정케 하는 자료로서 부각된다.[45]

2. 비파형동검문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에 대한 연구결과 학계의 공통된 견해는 내몽고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중국의 청동기문화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통칭하여 '北方靑銅器文化'라고 불리는데, 세부적으로 몇 개의 문화권으로 대별된다.

이들 가운데 고조선의 고고학적 문화성격을 설정함에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제시된 것은 '琵琶形銅劍'[46]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이다. 이 문화는 발생시기와 문화의 분포양상 및 담당종족의 성격이 고조선 문화의 내용과 대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파악되

43) 金貞培, 「中國에서 發見되는 우리나라 靑銅遺物의 問題 - 石棺墓의 劍,鏡,玉을 중심으로-」(『先史와 古代』 1, 1991) 55-66쪽.
44) 김정배, 앞의 글(1999).
45) 김정배, 앞의 글(1999a) 45쪽.
46) 이 청동단검은 종래 滿洲式銅劍, 遼寧式銅劍, 曲刃劍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고 있다. 한편, 이들 유물이 지석묘에서 발전된 석관묘 계통에서 주로 출토된다는 점은 이들 묘제가 지석묘를 계승하여 발전된 형태라는 점과 대부분 지역이 이들 지석묘문화와 중첩되며 일부 지역적 확장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따라서 고조선의 기반문화는 비파형동검과 지석묘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문화로 파악된다.[47]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요동, 요서를 포괄하는 요녕지역 및 내몽고와 연결되는 지역 그리고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殷周 靑銅器文化와는 구별되는 비파형 청동단검문화로 바뀌게 된다.[48] 이 문화는 남부시베리아 청동기문화와의 연결성[49] 속에서 遼河를 중심으로 발전된 문화로서 요서지역의 夏家店 上層文化,[50]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길림지역의 西團山文化,[51] 한반도 청동기문화 등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다.[52]

문제는 이 문화의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遼西說[53]과 遼東說[54]로 나뉘고 있는 점이다. 논의 내용은 요서설의 南山根－十二臺營子 型式과

47) 김정배, 앞의 글(1999).
48) 이강승,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한국고고학보』 5, 1979) 및 임병태, 「고고학상으로 본 예맥」(『한국고대사논총』 1, 1991).
49) 金貞培b, 『韓國 民族文化의 起源』(高麗大 出版部, 1973).
50) 靳楓毅,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考古學報』 87-2).
朱 泓, 「夏家店上層文化居民的種族類型及相關問題」(『遼海文物學刊』, 遼寧省博物館四十周年紀念特刊, 1989-1).
51) 李健才, 「關于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社會科學戰線』, 85-2).
52)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靑銅短劍的文化遺存」 上·下 (『考古學報』 82-4, 83-1).
박진욱,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53) 遲雷, 「關于曲刃靑銅短劍的若干問題」(『考古』 1982-1, 1982) ;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靑銅短劍的文化遺存(下)」(『考古學報』 1983-1, 1983).
54) 林沄, 앞의 글(1982) 및 翟德芳, 앞의 글(1988).

요동설의 雙房－二道河子 型式 사이의 크기를 중심한 형식적 선후문제가 쟁점의 초점이었다. 한편, 北韓學界에서는 1980년대까지 요동기원설을 주장[55]하다가 최근인 1993년 평양의 단군릉발굴 이후 평양지역 기원설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의 '요동기원설'을 '西北朝鮮起源說'로 대폭 수정한 것이다.[56]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유추되는 것은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석묘로 대표되는 초기 청동기문화의 지속적 발전이 비파형동검을 반출하는 석관묘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문화의 영역확대가 遼西, 吉林, 한반도지역으로 진행되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濊·貊·韓으로 대변되는 고대 한민족의 문화범주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영역확정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나타났고 그같은 전후 과정이 '箕子傳說' 및 『管子』 등에 나타나기 시작한 고조선 관련기사로 등장하였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고조선의 영역은 요동를 중심으로 遼河를 자연계선으로 중국의 정치적 성쇠와 연결되어 확장과 축소의 진폭 속에 그 역사적 영역을 유지하였다고 파악된다.

결 언

고조선 영역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크게 고조선 요동중심설, 한반도 중심설, 요동-한반도 이동설 등으로 정리되는 데 현재 학계는 전국시대 연과의 관계를 기점으로 이동론적 입장이 중심이 된 논의가 진행

55) 박진욱, 앞의 책(1987).

56) 한국학계의 입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古朝鮮의 영역과 중심지 문제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북한학계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중국학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등 정리된 입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요동론적 입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문헌자료에 대한 재해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중국세력과의 관계에서 단편적으로 중국적 입장의 문헌 내용만으로는 그 실체 파악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때의 기준점은 족속문제 및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기원전 7세기경인 춘추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조선의 대중국관계는 戰國초기에는 燕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기원전 3세기 중반 燕 昭王 때 秦開에 의한 東胡공략과 함께 고조선에 대한 공세가 급격히 진행되어 고조선 영역의 축소가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秦代의 장성위치문제 등과 관련하여 최근의 요동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문헌고증에 의거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현재의 요동지역으로 이해되어지며, 특히 大凌河 以東 지역에서 고조선의 독자적 문화와 정치적 영역을 상정케 된다. 漢代의 영역파악에서 『史記』의 王險城은 秦故空地 이남에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고조선이 遼東의 險瀆에서 그 중심을 옮긴 이후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후기 중심지에 대해 이동론에서는 平壤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동향에서 지적되었듯이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樂浪郡과 분리해 보고자 하는 입장과 고구려 초기 거점지역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지속적인 논쟁이 재연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문헌적 검토에 대한 고고학자료에 대한 해석은 비파형동검문화와 지석묘문화의 전개양상을 감안할 때 遼河유역이 주요한 경계선으로 부각된다. 이는 앞서 문헌에서 확인된 요동지역과 관련된 지명의 빈출이 고조선의 영역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측 자료의 일방적 수용단계를 지양하고 현지조사와 보다 구체적 자료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